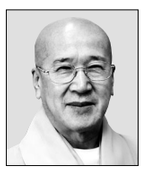
일 주 문



하와이서 보살계 법회

현성 도선사 조실 스님은 10월 9일 하와이 무량사 초청으로 보살계 대법회를 열고, 무량사양로원 불사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총동림동문회 추계워크숍

혜정 동국대 총동림동문회장 스님은 9월 27~29일 제주도서 추계워크숍을 열고, 군종수계법회, 어르신잔치 등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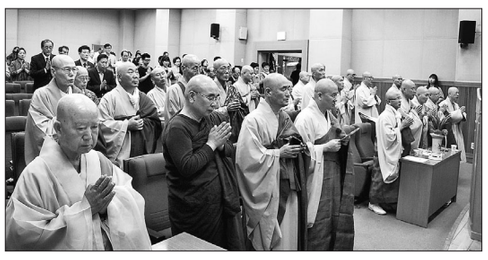
불교활동가 추천 접수

동출 설법연구원장 스님은 10월 31일까지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접수받는다.



한불연 구도회 창립 기념법회

박정하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장은 10월 8일 대구 동촌 퀸벤 호텔서 '창립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학생 포교, 정기 후원금 절실"

부전선원, 10월 7일 대학생불교발전토론회

대학생 불자 양성과 후원 방법을 모색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자리가 열렸다.

부산 부전선원(선원장 안국)은 10월 7일 부산대학교 성학관서 '새로운 비상 붓다, 그 답을 알고 있다'란 주제로 대학생불교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부전선원이 천일기도를 회향하며 부산대불교 바라밀회 3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발전 모색을 위해 열려 의미가 깊다.

토론회엔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탄현 스님(녹야원 주지), 이진오 부산대 교수, 정태권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조진규 부산대 학생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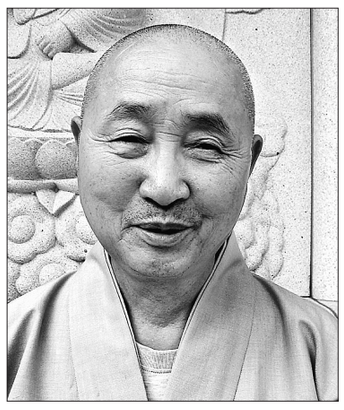
탄현 스님은 "대학생들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승가와 재가가 합심해 정기 후원금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권 교수는 "2015년 7월부터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회'를 조직하고 부산 불자 대학생을 지원한다"며 "대학생 포교를 위해선 불교적 가르침을 상황과 시대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성미 기자

"호박처럼 둥근 佛法 축제로 전하죠"

제 9회 호박축제 여는 양주 지장사 회주 대운 스님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개막 호박죽, 절편 등 20여 가지 선뵈 오후 1시 부터는 산사음악회도

"호박축제에 대한 발상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서 들어온 식품들이 우리밥상을 점령했는데 그러한 식품들엔 농약 성분이 많죠.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국산 웰빙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사찰 뒤켠 6백여평 정도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이 유기농 호박으로 갖가지 웰빙 음식을 개발해서 선보이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또한 호박이 부처님 법처럼 둥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 착안했죠. 처음엔 축제라기 보단 신도들에게 갖가지 호박음식 한끼 대접하잔 의미였습니다."

제 9회 호박나눔 축제를 펼치는 양주 지장사 회주 대운 스님〈사진〉은 기획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축제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산사음악회와 함께 진행된다. 그렇다면 어떤 호박 음식들이 밥상에 오를까?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것은 호박죽입니다. 그리고 호박 국수와 호박 부침개, 호박 절편, 호박 설기, 호박 차, 호박 줄기요리 등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우리 사찰은 도량에 원탁을 놓고 그곳에 다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예년에 비춰볼 때 대략 2000명 정도가 방문하죠. 또한 지장사가 위치한 양주시 덕계동에는 노인정이 30곳 넘는데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초청해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호박 나눔 축제인 셈이죠."

9년째를 맞이 하면서 10월이 되면 행사 날짜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스님은 말한다. 대운 스님은 "신도 보살님들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한 번 먹고 간 분들이 호박축제를 기다리죠. 축제 목적엔 웰빙과 더불어 포교의 원력도 있어요.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축제 현장이 도량인 만큼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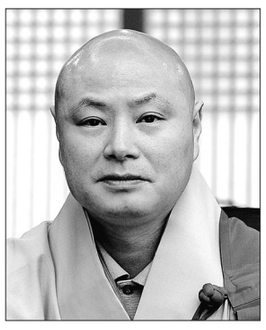
지장사는 단순히 축제만 즐기지 않는다. 행사서 나온 수익금을 모두 나눔의 행사 취지에 맞게 소외된 지역 이웃들에게 회향한다. 이번에도 양주지역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점심 공양 후 오후 1시부터는 윤시내, 조항조, 김현숙 등 인기 가수들을 초청한 산사음악회도 함께 연다.

마지막으로 대운 스님은 "지역사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특화된 포교방법이 필요 합니다. 우리 절은 산 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기적 교육을 하기에는 교통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죠. 이렇게 특화된 문화 포교를 자주 하다보니 이제는 양주시는 물론 인근의 의정부와 동두천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산중 불교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됩니다."

(031)863-1888 김주일 기자

"지역사회 '풀뿌리 포교' 전개"

양천불교연합회 초대회장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7개 사찰 1개 기관 연합 이웃종교 교세 극복하며 힐링·나눔 프로그램 진행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불교세가 약했던 서울 서남권에서 사찰과 불자들의 교류를 책임지는 연합회가 구성됐다. 양천불교연합회가 창립된 것이다.

연합회는 조계종 서남권 거점포교사찰인 서울 국제선센터를 비롯해 법안정사, 향림사, 비로선원, 금강사, 반야사, 보은사,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8곳이 참여했다. 향후 종단 구분 없이 다양한 사찰의 가입을 받아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사진〉은 취임식을 앞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후일 더 큰 역할을 하실 스님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탄웅 스님은 "그동안 양천구내 사찰과 스님들은 각자 취한 여건에 맞게 열심히 수행과 전법활동에 매진해 오고 계셨다"며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고,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됐다"고 연합회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양천불교연합회의 출범 모토는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이다. 탄웅 스님은 "양천불교연합회는 사찰 간 네트워크를 위해 가장 먼저 양천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의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격차 등이 있는 양천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천구가 교회만 480여 곳이나 있는 대표적인 개신교 강세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양천불교연합회의 출범은 불교세 확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웃종교의 교세가 강하지만 포용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불교의 장점을 살린다면 지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힘겨워 하는 대중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힐링프로그램을 결합해 심신을 어루만지는 '풀뿌리 포교'를 진행하면 지역사회서 더욱 튼튼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탄웅 스님은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포교활동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지만,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들이 함께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복리 증진 활동의 공동 진행 과정 속에서 화합하며 결속력도 강화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야 합니다. 갈등구조가 봉합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불교가 중심이 되고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풍사, 신축이전 낙성법회

신풍 스님, "대중불교 홍포에 앞장"



김해 신풍사(주지 신풍)는 10월 8일 '신축 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통도사 향과, 도천 스님을 비롯 성월, 현광, 만오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신풍 스님은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중불교 홍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45회 일붕문도의 날 대법회

10월 10일, 하남 청운사 대웅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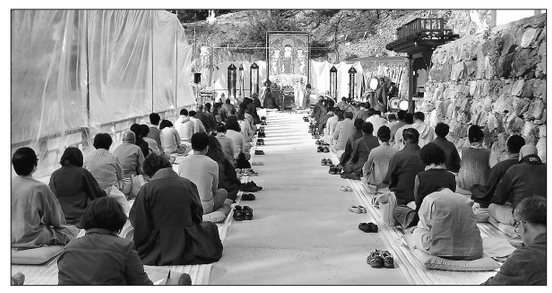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만주)는 10월 10일 하남 청운사 대웅전서 '제45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문도중앙회 명예총재 청운 스님, 총재 송산 스님, 이사장 겸 회장 만주 스님, 고문 용담 스님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청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회장단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도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공론의 장을 열어놓고, 원융회통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법사대 철야 염불정진

10월 8~9일, 동문학인 정진 수복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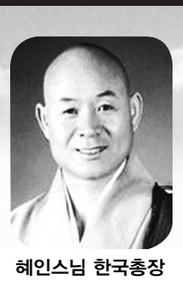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0월 8~9일 포천 천주사서 동문학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 염불정진 수복대회'를 봉행했다. 사회 속에서 불교발전과 포교활성화가 이뤄지도록 각자의 본분을 돌아보는 이번 행사서 동문들은 학장 지일 스님의 지도 아래 염불을 외며 신심을 다졌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